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염 승 희

국립나주병원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오 수 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초를 둔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어머니가 국제결혼 이민자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 17명으로, 처치집단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9명, 통제집단인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에 8명이 참여하였다. 각 집단의 참여자들은 사전검사 후에 각각 10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측정도구는 사회적 기술 평정체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 및 스트레스 질문지 등이었다. 변량분석 결과,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전반적 스트레스 점수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사회적 기술 점수에서는 약간의 상승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 아동들은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적은 표본 수, 표본의 대표성 문제 및 무선택당을 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우리 사회의 고 위험군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이 적용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향후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스트레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남대학교 특성화분야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균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
Fax : 062-530-2659 / E-mail : shk2004@jnu.ac.kr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09)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10만 명을 넘었으며, 등록 외국인만 85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약 5만 8천명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인구 증가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혼혈인구가 167만 명에 달하고, 신생아 셋 중 하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산된다(중앙일보,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 같은 양적 팽창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들이 상당수 학령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아동, 청소년이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의 한국 토착민 가정 자녀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았다(보건복지부, 2005). 다문화가정 가정의 취학 연령대 자녀 24,867명 가운데 6,089명(24.5%)이 정규교육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령기 18,691명 중 2,877명(15.4%), 중학교 취학연령 3,672명 중 1,459명(39.7%), 고등학생 2,504명 중 1,743명(69.6%)이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급학교로 가면서 미진학, 중도탈락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영주, 2007). 이들 청소년들은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과 더불어 학습결손과 학내에서 받는 차별로 인

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도 탈락,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 등 다양한 양상의 문제를 보인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연구들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성, 연령, 어머니의 국적,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과 비효율적인 양육방식, 생활수준, 주변의 도움, 교사의 관심 등 아동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요인들이거나(곽금주, 2008; 김오남, 2007; 박은애, 2007;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진수, 2005; 양순미, 2006; 오성배, 2007a), 자존감, 자아정체성 혼란, 자신의 특성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경향, 또래로부터 왕따 경험, 소극적인 대인관계 등 아동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곽금주, 2008; 서현, 2007; 신혜정, 2007; 오성배, 2007b; 이영주, 2007). 또한 사회적 편견과 멸시는 다문화가정 가정의 아동을 제도권 교육 밖으로 밀어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며, 노동시장에서도 공공연한 차별을 받게 하기도 한다(설동훈 등, 2005). 이처럼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다소 규명되어 있는 데 비해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나 예방적 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노출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시급한 것은 심리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학령기에 있는 이들 아동에게 초기 부적응의 문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긍정

적인 또래 관계는 아동들의 중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는 것을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발달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민정순, 2002).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발달 지체, 학업 능력 저하 등이영주, 2007)에 더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이나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울과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부적응이 누적되면 청소년기로 갈수록 일탈과 규범위반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이전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통해 우울이나 품행 문제, 학교 이탈 등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향후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및 부적응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의 일반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문제해결 기술, 대인관계 기술, 성숙한 방어기제기술훈련(Carr, 1999) 등을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수성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기술 향상,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술이 아동들의 적응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가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문영희, 1998).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에 따라 우울과 외현화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며(오경자, 김은희, 도례미, 어유경, 2005),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강성희, 이재연, 1992).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이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능력의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유능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미정, 2004). 수준이 많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 훈련을 받은 집단의 아동이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기술과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이현숙,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문제해결 양식과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실제 문제해결의 수행능력도 양적, 질적인 면 모두에서 향상되었다(이미정, 2004). 이 같은 선행 연구들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또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여러 심리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시사된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국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적인 인지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증상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08). 또한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동적 사고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하, 김춘경, 2006).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부모 스트레스나 갈등에 기인한 심리사회적 환경의 불안정성 등에 노출되기 쉬워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Cardemil, Reivich, Beevers, Seligman, & James, 2007).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같이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지 변인을 교정하는 개입이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면 우울증 예방과 적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Spence & Reinecke, 2003).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의 특성을 고려해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인식하는 민감성,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과적 사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적 사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내는 대안적 사고, 구체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구상할 수 있는 수단-목표적 사고,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Little & Kendall, 1977;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8에서 재인용). 이는 대인관계 문제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적응 문제들에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화와 내재화 등 여러 포괄적인 적응 문제를 중재하는 데 인지행동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국내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적 사회기술을 훈련했

을 때 사회적 유능감이 증진되었다(양윤관, 1995). 비순응 및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동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해결기술을 향상시켰고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었다(오경자 등, 1998). 또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다루는 데 인지행동치료가 치료적, 예방적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으며(박은정, 김은정, 신민섭, 2008),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고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 습득을 훈련시키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었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위해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적이 없지만 외국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Betsy, Sunita, Jennifer, Puja와 Graham(2006)은 미국 내 소수민족 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다루는 데 인지 모델이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초를 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주관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 등 심리적 어려움이 현저해지기 이전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학습기술향

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제집단 아동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지방 소재의 1개 초등학교와 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머니가 국제결혼 이민자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모집하여 부모와 교사가 동의한 2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기관들의 거리가 멀어 지역별

로 집단을 나누게 되어 무선 할당은 하지 못하였다. 질문지에 무선응답을 한 4명을 제외하고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 9명과 통제집단으로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 집단 8명 등, 총 1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별로 성, 학년,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나이는 참여집단 47.11(4.08), 통제집단 48.75(3.54)였고, 어머니 나이는 참여집단 42.22(5.61), 통제집단 42.13(3.83)였다. 어머니의 출신국에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처치집단 (n=9)	통제집단 (n=8)	χ^2
성	남	7(77.8)	5(62.5)	.48
	여	2(22.2)	3(37.5)	
학년	3학년	3(33.3)	2(25.5)	.81
	4학년	3(33.3)	3(37.5)	
	5학년	2(22.2)	1(12.5)	
	6학년	1(11.1)	2(25.5)	
어머니 출신국	일본	6(66.7)	1(12.5)	6.03*
	필리핀	3(33.3)	5(62.5)	
	중국	0	2(25.5)	
아버지 학력	대졸	1(11.1)	1(12.5)	4.42
	고졸	3(33.3)	2(25.5)	
	중졸 이하	2(22.2)	5(62.5)	
	무응답	3(33.3)	0	
어머니 학력	대졸	3(33.3)	6(75.0)	5.96
	고졸	3(33.3)	0	
	중졸 이하	0	1(12.5)	
	무응답	3(33.3)	1(12.5)	

* $p < .05$.

참가자 집단의 경우 일본 출신 어머니의 자녀가 가장 많았으며, 통제집단 참가자 중에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자녀가 가장 많았다, $\chi^2 = 6.03, p < .05$.

도구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질문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사용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질문지 중 일부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부모 및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 및 물질 스트레스 등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유진, 2008). 요인별 문항수가 적고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낮아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분석하였다. 강유진(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사회기술 평정체계

사회기술을 평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이 제작한 사회기술 평정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1998)이 번안하고 한영주(199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Gresham과 Elliott(1990)은 3세에서 18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질문지 형식으로 제작하였는데, 문성원(1998)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원척도를 번안하여 7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다시 이것을 한영주(1999)가 수정하고 요인 분석하여 협동성,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로 하위영역을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사회기술 점수 및 4개의 하위 영역 점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협동성 영역은 .80, 공감 영역은 .84, 주장성 영역은 .87, 자기조절 영역은 .85였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척도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1)가 개발한 검사를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 (Korean-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K-CA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학년, 성별, 지역과 부모님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국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처치 프로그램 및 절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처치집단은 1회기 1시간씩 총 10회기의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은 이현숙(2004)이 번안하여 한국의 아동 특성과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 맞게 수정, 제작한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배경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자존감, 자아정체성, 또래관계, 학교생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다문화가정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약 2년 정도의 아동 심리치료 경력을 가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임상심리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

표 2.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구성표

회기	제목	목표	주요 내용
1	반갑다, 친구야!	친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나누기 나를 소개하기 프로그램 알기
2	우리들의 약속	규칙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가 바라는 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켜야 할 것
3	멋진 나, 자신 있는 나	자신감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대한 좋은 생각 나의 장점과 단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
4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나는 어떤 친구인지 생각하기 좋은 친구 되기 위한 계획과 실천
5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갈등 상황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은 왜 생길까요 그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6	감정은 어디서 오나요?	감정과 생각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나는 생각하고 느껴요
7	좋은 생각, 좋은 느낌	합리적인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 생각을 지워라
8	내 마음을 받아줘~	효과적인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을 전달하는 ‘나-전달법’ 의견을 전달하는 ‘주장적 표현’
9	단지 다를 뿐이에요	편견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르다는 것 모든 사람은 독특하다
10	자신 있어요!	각오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료식 평가 및 소감나누기

로그래의 회기별 주요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참여집단과 동일한 기간과 회기 동안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부록 1 참조)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건강연구소(2004)에서 제작한 것을 저자들이 본 아동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두 집단 모두 1 회기에 사전검사를, 10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이 끝난 후 통제집단에게도 사회적 기술 훈련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SPSS 17.0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별로 두 집단의 사전 동등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 프로그램 참여 전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검사 시기에 따라 집단별 점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집단과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2 \times (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값은 각 측정도구별로 합산된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아동별로 처치 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 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 집단과 학습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처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별로 두 집단의 사전 동등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사전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즉, 전반적 사회적 기술의 경우 $F(1, 15) < 1, n.s.$, 협동영역, 공감영역, 자기조절영역, 주장영역의 경우에도 각각 $F(1, 15) < 1, n.s.$, $F(1, 15) < 1, n.s.$, $F(1, 15) < 1, n.s.$, $F(1, 15) < 1, n.s.$ 로 나

표 3. 집단 및 시기별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처치집단(n=9)		통제집단(n=8)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반적 사회기술	2.69(1.07) ^a	3.09(1.19)	2.55(.80)	2.32(.81)
협동영역	2.93(1.21)	3.63(1.28)	2.71(1.04)	2.35(1.30)
공감영역	2.52(.96)	2.79(1.10)	2.54(.85)	2.45(.96)
자기조절영역	2.77(1.30)	3.08(1.33)	2.65(.87)	2.24(.77)
주장영역	2.58(1.06)	2.92(1.27)	2.34(.56)	2.25(.69)
부정적 자동적사고	1.41(.37)	1.11(.12)	1.04(.06)	1.07(.08)
스트레스	1.51(.41)	1.28(.36)	1.14(.16)	1.22(.25)

^a 합산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평균점수임.

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경우 $F(1, 15) = 7.66, p < .05$, 스트레스 점수의 경우 $F(1, 15) = 5.68, p < .05$ 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해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즉, 처치집단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전반적 사회적 기술 점수에서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ns$, 검사 시기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ns$.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F(1, 15) = 4.24, p = .057$. 상호작용의 설명량은 22%였다. 이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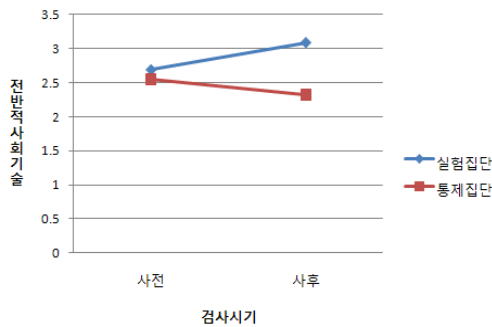


그림 1. 집단 및 검사시기별 전반적 사회적 기술 점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협동영역에 대해 변량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2.08, ns$, 검사 시기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5) < 1, ns$. 그러나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5) = 6.77, p < .05$. 이는 처치 프로그램이 각각의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을 나타낸다. 상호작용의 설명량은 31%였다.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F(1, 15) = 6.29, p < .05$.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5) = 1.47, ns$. 이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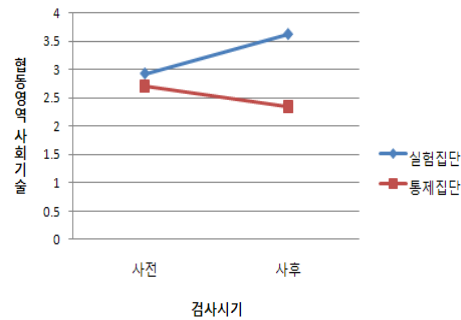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및 검사 시기별 협동 점수

공감영역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참여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ns$, 검사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ns$. 또한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08, ns$. 따라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처치에 따라 공감 능력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영역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m.s.$, 검사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5) = .10, m.s.$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F(1, 15) = 5.40, p < .05$. 상호작용의 설명량은 27%였다.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처치집단의 경우 $F(1, 15) = 2.12, m.s.$, 통제집단의 경우 $F(1, 15) = 3.32, m.s.$ 이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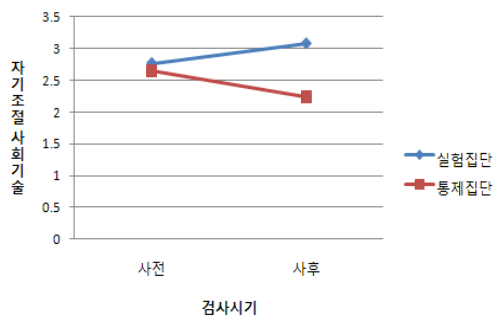


그림 3. 집단 및 검사 시기별 자기조절 점수

주장영역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 < 1, m.s.$, 검사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5) = 1.09, m.s.$ 또한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5) = 1.91, m.s.$ 따라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처치에 따라 주장 능력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 $F(1, 15) = 5.41, p < .05$, 검사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 15) = 7.20, p < .05$. 또한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

다, $F(1, 15) = 10.95, p < .01$. 상호작용의 설명량은 42%였다. 이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F(1, 15) = 19.07, p < .001$.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5) < 1, m.s.$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치집단의 아동들이 사전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처치 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짐으로써 통제집단과는 차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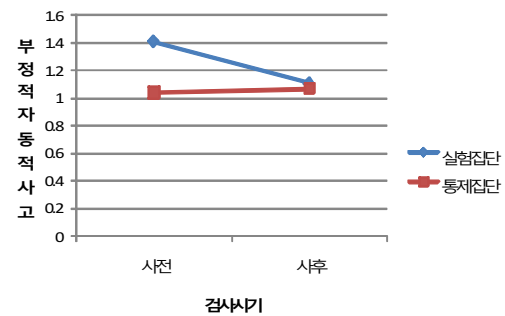


그림 4. 집단 및 검사 시기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

스트레스 총점에 대해 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1, 15) = 2.67, m.s.$, 검사 시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5) = 4.51, p < .05$. 또한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 $F(1, 15) = 8.06, p < .01$. 상호작용의 설명량은 35%였다. 이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사전 점수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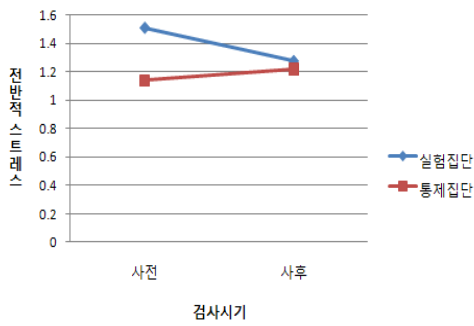


그림 5 . 집단 및 검사 시기별 스트레스 점수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F(1, 15) = 13.08, p < .01$.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5) < 1, ns$.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치집단의 아동들이 사전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처치 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짐으로써 통제집단과는 차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별 프로그램 사전, 사후 전반적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점수 및 의미 있는 변화 여부

집단	아동번호	전반적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스트레스		
		사전	사후	변화 ^a	사전	사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
처치 집단	아동 1	3.36	4.49	○	1.03	1.03	×	1.06	1	×
	아동 2	4.26	4.49	○	1	1	×	1.13	1	×
	아동 3	2.59	2.74	×	1.13	1.03	×	1.38	1.44	×
	아동 4	1.59	2.49	×	1.19	1	×	1.25	1	×
	아동 5	2.54	1.72	×	1.34	1.13	×	1.44	1.38	×
	아동 6	4	3.51	×	1.63	1.06	×	1.31	1	×
	아동 7	3.03	4.54	○	1.91	1.22	×	2	1.13	×
	아동 8	1.33	1.82	×	2	1.34	×	1.75	1.31	×
	아동 9	1.54	2.03	×	1.47	1.19	×	2.25	1.88	×
통제 집단	아동 10	4.28	3.49	×	1.13	1.03	×	1.06	1.25	×
	아동 11	2.56	1.87	×	1	1	×	1.13	1	×
	아동 12	1.9	1.13	×	1	1.09	×	1	1	×
	아동 13	2.38	2.36	×	1	1.06	×	1	1	×
	아동 14	2.62	3.18	×	1.09	1.25	×	1.5	1.5	×
	아동 15	1.56	1.46	×	1.13	1.09	×	1.13	1	×
	아동 16	2.62	2.67	×	1	1.06	×	1.13	1.39	×
	아동 17	2.51	2.41	×	1	1	×	1.19	1.31	×

^a 유의미한 변화의 기준 점수: 전반적 사회적 기술 4.48, 부정적 자동적 사고 0.59, 스트레스 0.62 사회적 기술의 경우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경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기준 점수보다 낮은 경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5. 아동별 프로그램 사전, 사후 사회적 기술 영역별 점수 및 의미 있는 변화 여부

집단	아동번호	협동			공감			자기조절			자기주장		
		사전	사후	변화 ^b	사전	사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
처치 집단	아동 1	3.67	5	×	2.4	4	×	4.5	4.8	×	2.9	4.2	○
	아동 2	4.56	5	×	3.9	3.9	×	4.5	4.8	×	4.1	4.3	○
	아동 3	3.56	3.89	×	2	1.4	×	2.3	2.9	×	2.6	2.9	×
	아동 4	1.89	3.44	×	1.6	2.4	×	1.1	2	×	1.8	2.2	×
	아동 5	2.78	2	×	2.2	1.6	×	2.8	1.8	×	2.4	1.5	×
	아동 6	4.11	3.89	×	3.9	3	×	3.9	3.6	×	4.1	3.6	×
	아동 7	3.22	5	×	3.3	4.4	○	2.8	4.3	×	2.8	4.5	○
	아동 8	1.44	1.67	×	1.3	2	×	1.4	1.8	×	1.2	1.8	×
	아동 9	1.11	2.78	×	2.1	2.4	×	1.6	1.7	×	1.3	1.3	×
통제 집단	아동 10	5	3.56	×	4.3	3.8	×	4.5	3.5	×	3.4	3.1	×
	아동 11	2.56	1.33	×	2.4	2.2	×	2.7	1.6	×	2.6	2.3	×
	아동 12	2	1.11	×	1.7	1.1	×	2	1.1	×	1.9	1.2	×
	아동 13	2.44	2.67	×	2.3	1.9	×	2.5	2.2	×	2.3	2.7	×
	아동 14	2.89	3.56	×	2.8	3.6	×	2.2	2.6	×	2.6	3	×
	아동 15	1.56	1.22	×	1.6	1.5	×	1.6	1.7	×	1.5	1.4	×
	아동 16	3	3.11	×	2.3	2.6	×	2.9	2.9	×	2.3	2.1	×
	아동 17	2.22	2.22	×	2.9	2.9	×	2.8	2.3	×	2.1	2.2	×

^b 유의미한 변화의 기준 점수: 협동 5.03, 공감 4.29, 자기조절 4.88, 자기주장 4.15

프로그램 참여 전, 후의 개별 아동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Jacobson과 Truax(1991)가 처치 후 의미 있는 변화의 기준으로 제안한 공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정신병리 척도들이 아니어서 표준화된 기준 자료나 절단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본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으로 $M_1 + 2s_1$ ¹⁾ 공식을 사용하여 각 척도별로 유의

미한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점수를 산정하였다. 이 기준 점수와 프로그램 사후 점수를 비교해 개별 아동별로 처치 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의 경우,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사례가 없었지만 처치집단에서는 3명의 아동이 프로그램 사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영역별 사회적

1) M_1 : 사전 처치집단과 사전 통제집단의 평균값,

s_1 : 사전 처치집단과 사전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기술의 경우,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사례가 없었지만 처치집단에서는 1명의 아동이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3명의 아동이 자기주장 능력이 향상되었다. 협동영역의 경우 3명의 처치집단 아동들이 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5.03점에 근접하여 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자기조절영역의 경우에도 2명의 처치집단 아동들이 4.8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4.88점에 근접하여 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아동별로는 처치집단의 1번, 2번, 7번 아동이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개별 아동별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심리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어머니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처치집단에게는 10회기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에게는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치집단의 경우, 심리 사회적 적응력과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집단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다소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협동 영역은 처치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된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협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갈등 상황 알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망해보기, 해결을 위한 행동목록 만들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 활동 찾기 등을 통해 문제 해결과 대인 관계 자신감이 향상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 영역은 단순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변화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또한 공감과 자기주장 영역에서도 두 집단의 변화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활동에서 상황과 결과를 조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활동이 부족했던 데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회기에서 주장적 표현하기 방법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영역의 사회기술이 향상되지 못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난이도나 충분한 연습 부족 등과 같은 진행 방법의 적절성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감소되었다. 반면, 통제집단 아동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인지행동적 접근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회불안인지, 신체위협인지, 적대적인지 등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여러 영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

경자 등(1998)은 비순응 및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에게 문제해결기술훈련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결과 이들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역기능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감찰하고, 이들 역기능적 사고에 논박하는 훈련을 통해 인지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적 기술 훈련을 받은 아동 집단에서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프로그램의 의도와 효과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처치집단이 사전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용이했을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 아동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도입부에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 다루었고, 매회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대한 이전 회기의 내용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서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데에 일부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자원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위기중재의 역할을 한다(강유진, 2008). 본 연구 결과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절차를 포함한 개입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회기에서 나-전달법과 주장적 표현하기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부모나 친구에게 감정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일상적 갈등 줄이기를 도모하였다. 그뿐 아니라 인지적 접근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것도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처치집단이 사전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더 용이했을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스트레스의 세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유의미 경향성을 보이는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또한 개별 아동별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제집단 아동들이 긍정적 변화를 보인 사례가 전혀 없는 데 비해 3명의 처치집단 아동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들에서의 변화는 예상했던 것만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통제집단과 차별적으로 변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된 사례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현재 부적응을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어서 스트레스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수가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본 분석에서 채택한 임상적 유의도 기준이 너무 엄

격하여 긍정적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지 못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고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등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일부 아동들에게만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어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개별 아동들 중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3명의 아동들은 처음부터 사회적 기술 점수가 높은 아동들이어서, 본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들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프로그램이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적응력 향상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강점을 키우는 데 주력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개입이 부족했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수준의 자격이나 경력을 갖지 못한 초보 임상가가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처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통제집단이 처치집단만큼의 다른 개입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효과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무선할당을 하지 못했고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엄격하게 입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집단별 개입에 대한 기대 수준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대 효과를 배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사후의 두 시기에만 측정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로 인한 변화가 장기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의 지속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면 본 연구 결과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2~16세의 청소년이 이전 연령의 집단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이 비교적 잘 설명되고 조직화된 상태로 나타난다(오경자 등, 1990). 따라서 이 시기에 추수 검사를 실시한다면 본 프로그램이 이후의 적응과 우울, 불안, 품행문제 등의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아동들의 특성에 따른 장기적 효과 여부를 검증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예방적 개입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있다. 이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적 강점을 길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취학연령대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학교적응과 정상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응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이전에 심리적 개입을 함으로써 이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것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치료효과가 아닌 예방을 위한 적응력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하은혜 등(2004)의 연구에서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청소년기에 유병률이 급

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응력을 키우고 향후 심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을 하였지만, 이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중퇴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학교 장면에서 일반 아동들이나 교사들의 의식 수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예방적 개입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교 기반의 전반적인 개입도 병행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국내의 한 전반적 개입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 아동들에게 9주 동안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외모, 능력, 인종, 문화, 가족에 대한 유아들의 편견 인식이 증진되었다(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 이 같은 사회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 개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반 학생들도 다양성에 대해 수용하게 됨으로써 획일화된 가치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모두 고위험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 등,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방적 개입에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뿐 아니라 강점을 부각시키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희, 이재연 (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13(2), 175-188.
-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곽금주 (2008). 통합심포지엄: 다인종,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심리학적 과제와 전망: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08, 1-26.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홈페이지 www.mest.go.kr, 2008년 주요교육통계.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7(6), 249-261.
-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3-961.
- 문성원 (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희 (1998).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학교.
- 민정순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김은정, 신민섭 (2008). 우울 위험 집단 아동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저소득 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08, 614-615.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12(4), 25-47.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리건강연구소 (2004).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 11, 223-253.
- 양윤란 (1995). 아동용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경자, 이해련 (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 I: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33-5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YSR(한국청소년자기행동 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오성배 (2007a).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호.
- 오성배 (2007b). 현장진단: 국제결혼 가정 자녀(Kosian)의 교육 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2007 봄·여름호.
- 이미정 (2004). 청소년용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훈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41-161.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현숙 (2004). 학교-기반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79-100.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3(4), 547-561.
- 중앙일보 (2006). 코시안의 정치세력화 가능성. 4월 4일자 종합면.
-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2), 65-79.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9).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09년 8월호.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

- 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263-279.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영주 (1999). 중 고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tsy, D. K., Sunita, M. S., Jennifer, L. H., Puja, G. P., & Graham, J. E., (2006). Cogni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3), 578 -591.
- Cardemil, E. V., Reivich, K. J., Beevers, C. G., Seligman, M. E. P., & James, J. (2007).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low-income, minority children: two-year follow up.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313-327.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 N., American Guidance Service.
- Jacobson, N. S., & Truax, P. (1991). Clinical significance: a statistical approach to defining meaningful change in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1), 12-19.
- Little, V. L., & Kendall, P. C. (1977). Correspondence of brief intelligence measures to the Wechsler scales with delinqu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4), 660-666.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091-1109.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A. T. Beck, M. A. Reinecke, & D. A. Clark (Eds.), *Cognitive therapy across the lifespan: evidence and practice* (pp.358-3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원고접수일 : 2010. 4. 6.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7. 1.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7. 30.
게재결정일 : 2010. 8. 3.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Group-Training Program on Social Skill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Stress in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Seung-Hee Yeum

Naju National Hospital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o-Sung Oh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group-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on the social skill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stress levels of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17 3rd to 6th-grade elementary-school students whose mothers wer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Nine children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al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8 children participated in a learning skills training program, as the control group. Each program comprised 10 sessions. We used a social skills rating system, the Korean-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and a stress scale for the participants' pre-and post-tests.

The resul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solely in the experimental group's general stres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a margin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nly that group's social skills after the program. We had a limited ability to rigorously test the program's effects because of small sample size and problems with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and random assignment of the groups. In spite of these limit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is social skill training for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who are a high-risk group in our society, may have a preventive effect through positive change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Key words : social skills group training program,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social skill, negative automatic thoughts, stress

부록 1.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 구성표

회기	목표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참여 동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2	학습동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형성 · 공부는 왜 하지?
3	학습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습관 진단 · 학습 환경 조직화하기
4	시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사용실태 평가하기 · 효과적인 시간계획법 알기 · 시간 관리요령 알기
5	집중력 향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 향상법 알고 적용하기 · 활동을 통한 주의 집중법 익히기
6	수업참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태도 점검하기 · 듣기의 5가지 방법 알기 · 수업 중 주의산만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7	읽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읽기 3단계 학습하기 · 읽기 전략 적용하기
8	필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필기의 중요성 알기 · 효과적인 노트 필기방법 알기
9	기억술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력 향상법 알고 적용하기 · 재미있는 활동을 통한 기억술 연습
10	프로그램 종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 학습에 대한 자신감 갖기

부록 2. 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	p	η^2
전반적 사회적 기술	집단	1.75	1	1.75	.99	.34	.06
	검사시기	.06	1	.06	.29	.60	.02
	집단 * 검사시기	.85	1	.85	4.24	.06	.22
	오차	3.00	15	.20			
협동점수	집단	4.77	1	4.77	2.08	.17	.12
	검사시기	.25	1	.25	.70	.42	.05
	집단 * 검사시기	2.40	1	2.40	6.77	.02	.31
	오차	5.32	15	.36			
공감점수	집단	.22	1	.22	.14	.72	.01
	검사시기	.07	1	.07	.28	.61	.02
	집단 * 검사시기	.27	1	.27	1.08	.32	.07
	오차	3.68	15	.27			
자기조절 점수	집단	1.94	1	1.94	.86	.37	.06
	검사시기	.02	1	.02	.10	.75	.01
	집단 * 검사시기	1.11	1	1.11	5.40	.04	.27
	오차	3.08	15	.21			
주장점수	집단	1.76	1	1.76	1.09	.31	.07
	검사시기	.14	1	.14	.68	.42	.04
	집단 * 검사시기	.40	1	.40	1.91	.19	.11
	오차	3.11	15	.21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집단	.35	1	.35	5.41	.03	.27
	검사시기	1.51	1	1.51	7.20	.02	.32
	집단 * 검사시기	.23	1	.23	10.95	.01	.42
	오차	.32	15	.02			
스트레스	집단	.38	1	.38	2.67	.12	.15
	검사시기	.11	1	.11	4.51	.05	.23
	집단 * 검사시기	.20	1	.20	8.06	.01	.35
	오차	.38	15	.03			